



LG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기업형성 과정

Sanghyun S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21.01.28



연암 구인회 회장과 LG그룹



故 구인회 LG창업주

-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1만원(1억원 추산) 지원
- 1907년 경남 진주 출생
- 반도체사 사장
- 한국케이블공업 사장
- 금성사 회장
- 럭키유지 회장
-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 럭키유지공업 사장




연암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 어록

- ▶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 ▶ “일시적으로 팔 생각만 말라. 고객과의 꾸준한 관계만이 기업의 생명이다”
- ▶ “한 통을 팔더라도 좋은 물건 팔아서 신용 쌓는 일이 더 중요하다”
- ▶ “기업인의 공과라는 것은 벌여놓은 돈의 무게로써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도로 결정되는 것이다”
- ▶ “돈을 버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 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하라”

LG그룹 연혁





사업의 시작 - 구인회 상점 (1931)

기업가정신의 발상지로 LG그룹 기틀을 마련한 시기

- 연암이 최초의 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포목상이었다. 당시 진주는 소비 도시로 사람들로 붐비고 부유한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 연암은 집안의 반대를 설득해 1931년 7월 25살에 동생 구철회와 함께 자본금 3800원으로 '구인회상점' 간판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 1932년 11월 연암은 부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8000원의 융자를 받아서 경영규모를 확대했다.
- 포목상 경영으로 구인회상점이 한창 번영하고 있던 1940년 6월 연암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주식회사 구인상회'로 변경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등 근대적 경영체제를 갖추나갔다. 당시 구인상회는 예금 잔고가 무려 40만엔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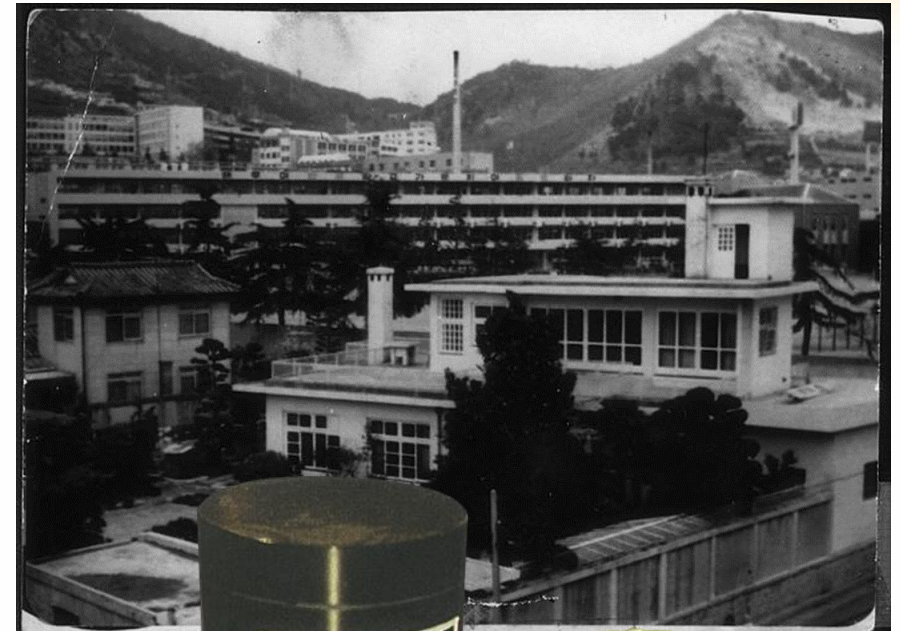


럭키크림의 탄생 - 락희화학 공업사(1944)



**대한민국 화학산업 새로운 장을 열고,
오늘날 LG의 주력 분야인 화학 사업의 기틀 마련**

- 연암은 '지구상에서 화장품은 영원하다'는 판단하에 화장품사업을 결심했다. 1947년 1월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해 럭키표 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 갈색 용기에 미국의 유명 여배우 '디아나 다빈'의 얼굴을 담은 이 제품은 처음 '상하이에서 들어온 외제품'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첨단 디자인'을 자랑했다.
- 1951년 화장품 용기까지 만들겠다고 플라스틱 가공업에 도전, 깨지지 않는 화장품 뚜껑을 만들었다. 이어 빗, 비눗갑, 칫솔, 식기류에서도 플라스틱 시대를 열었다.



생활용품 생산의 개척



한국 최초 플라스틱 생산으로 생활용품 개척

- 연암 구인회 회장
 -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생활필수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 아닌가 말이다”
 - “생산업자가 국민의 생활용품을 차질 없게 만들어 내는 일도 애국하는 길이고 전쟁을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 1954년 발매한 럭키치약으로 처음 국산 치약을 만들었고, 3년 만인 57년, 미제 콜게이트치약을 제치고 국내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 1966년 개발된 가루형 합성세제인 하이타이는 출시 30년 만에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슈퍼타이-한스푼-테크’ 등으로 이어지며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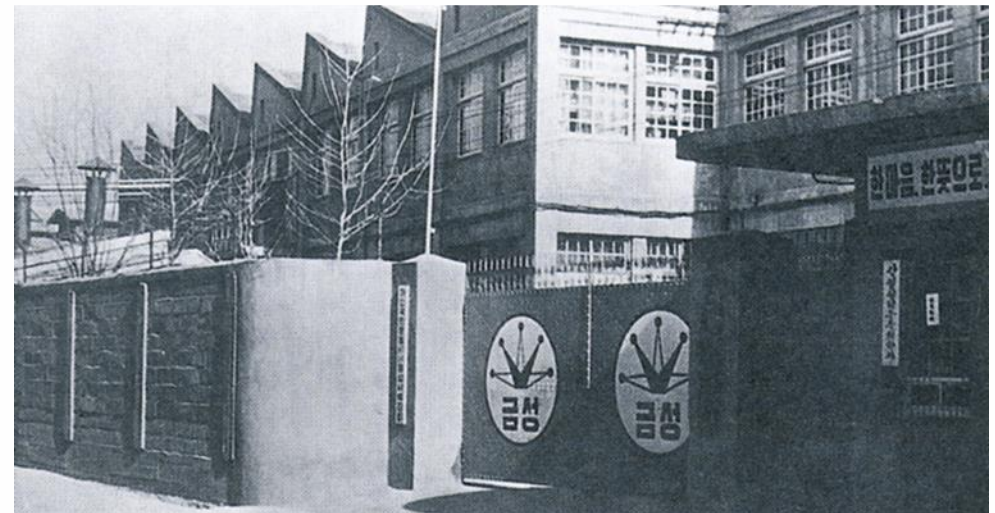


한국전자산업의 개척 – 금성사(1)



화학분야의 경험으로 새로운 산업으로의 도전

- 연암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발휘된 것은 1958년 '금성사'를 설립해 전자산업에 진출한 것이다.
- 당시 전자산업으로 진출은 지난 10여년간 화공분야에서 전력투구를 다한 연암의 일대 용단이 아닐 수 없었다.
- 연암은 당시 전축으로 음악감상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에게 “하이파이 전축이라는 것이 그래 재미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공업에 손댄 사람 누구 있어요? 기술이 없으면 외국 가서 기술 배워오고, 그래도 안되면 외국 기술자초빙하면 될 것이 아니요. 전자공업 해봅시다. 우리가 개척자가 되는 것이요.”



한국전자산업의 개척 – 금성사(2)



국산 “최초” 타이틀 보유 초강자



<최초의 국산 흑백텔레비전>



<국내 최초 상용화 가정용 냉장고>



<국내 최초 진공관식 라디오>

금성自動電話機市販開始!!
電話機를 購入하실때나, 架設 하실때는
금성製로 指定 하십시오

1) 이이型機는 他社製品에 比하여 原價가 5割이나 廉價한 特殊프라스틱을 使用하고있으므로
時日이 経た 色褪 變色하거나 漆面剥落下의 金漆가 剥が
2) 電機의 重量이 輕이 鐵製이나 厚皮面에서 金製型機인 輕便型機에 完全對稱하며 使用이 容易
3) 電機의 特徴이 輕便型機에 符合하여 遠近各地 市外電話等 架設이 容易하다.

※ 金성電話機를 取扱코자하시는 本은
下記 事務所로 連絡하여 申請시오

서울 市 中區 京洞 97의2 金成電機 709號室
株式會社 金星社 서울總店 電話 ④ 3 0 0 7 ⑤ 6 9 6 1
釜山 市 釜山區 蓮花洞 341番地
株式會社 金星社 電話 ④ 1231~1235

株式會社 金星社

<국내 최초 자동식 전화기>

끝없는 도전, 정유사업으로 가는길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 “호남정유”

- 구인회 회장이 석유화학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생활용품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자재가 석유화학 제품이라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수입하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 1967년 락히화학공업과 미국의 칼텍스 석유회사간의 합작하여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인 호남정유를 설립하였다.
- 호남정유는 하루 원유 처리량을 1969년에는 6만 배럴로 시작해 2년 만에 10만 배럴로 늘렸다. 연이어 16만 배럴로 확장을 거듭해 2010년에는 하루에 76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회사가 되었다.
- 국내 석유 수요의 3분의 1을 공급하고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세계로 수출하는 초대형 회사인 GS칼텍스로 성장하였다.



칼텍스 회장과 연암.



연암 구인회 회장의 “기업가정신”



“우리 럭키는 이제 이만한 일꾼이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옛날 중국의 우공(愚公)이란 사람은 태산을 옮기기도 했다는 데 훌륭한 인재집단이 우리 산업계에 큼직한 기둥 하나 못 세운다면 말이 안되지.” - 연암 구인회 회장

- 연암은 한번 결정하면 전력을 투입하고, 10년은 견뎌내야 한다는 선친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다. 어떤 약속이나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켰는데, 결코 의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
- 사돈이나 친구가 하는 일을 빼앗거나 훼방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금기로 알았다.
- 기업의 정도(正道)는 창 의와 노력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해나가는 것이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본재에 투기함으로써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었다.



연암 구인회 회장의 “도전과 개척주의”



“신념이 있을 때 인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사업을 착수해서 성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자랑스런 일인가 생각해 보라” - 연암 구인회 회장

- “남이 미처 안 하는 것을 선택하라.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부터 착수하라. 일단 착수하면 과감히 밀고 나가라. 성공하더라도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 한층 큰 것, 보다 어려운 것에 새롭게 도전하라”
- 연암 구인회 회장 생애는 ‘창업과 개척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연암의 도전과 개척주의 신념은 첫째 유교적 인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당시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상업의 길로 투신하는 도전 정신, 둘째는 락희의 창업과 화학공업, 전자공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과 개척주의 정신, 셋째로는 기간산업의 개척과 성장 등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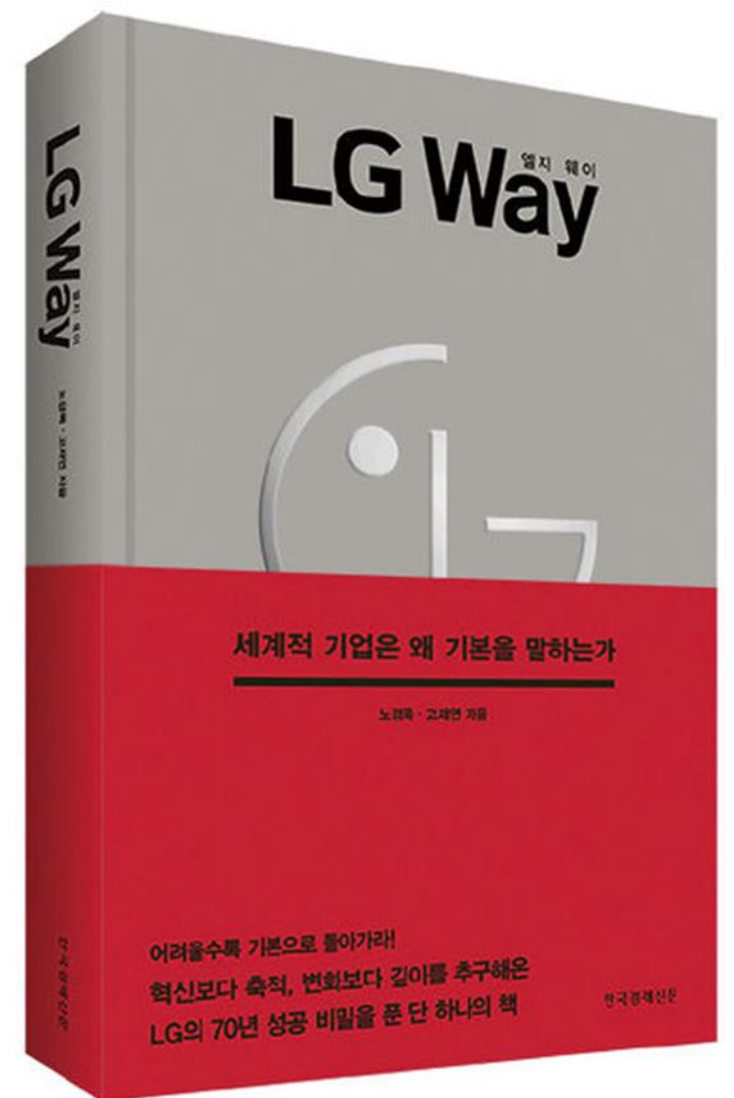
<국내 최초 국산화 자동전화기>

LG Way – LG 기업가정신 ‘인화경영’



인재 양성의 꿈 – ‘인화(人和)’ 서로 믿고, 이해하면 불가능은 없다

- 연암의 경영철학은 첫째 인화단결, 둘째 신뢰감, 셋째 책임감, 넷째 무한한 가능성의 인정이다.
- 연암은 특히, ‘인화(人和)’를 중시했다.
 - “기업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기업을 하는 데는 내부의 인화가 무엇보다 서야 한다. 인화로 단결하면 무엇인들 불가능하겠는가”
 - “만사가 모두 잘 되더라도 인화가 깨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도리이다. 인화가 기업경영의 근간이다”
 - “우리 6형제에게 서로 기대어 살겠다는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얼핏 정이 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나, 자기분수를 지킬 줄 아니,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마음이 편하고, 서로의 우애가 손상될 일이 없는 것이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LG



- 연암이 평소 강조해 온 '기업이 인간이고 인간이 기업'이라는 기업관은 '나무를 가꾸듯이 연암이 소중히 해 온 사람중심의 기업경영'을 지칭하며, 인화중시는 다음 세대에 걸쳐 인재 육성철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오늘의 LG는,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 수많은 파트너사들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LG를 응원해주신 고객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LG의 진심이 담긴 우리만의 방식을 더욱 고민해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습니다. 제대로 실천해간다면 '고객과 사회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LG'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



QUESTIONS?

